

[실무수습기-검찰심화실무실습]

검사를 향한 꿈과 열정만 있다면 망설이지 말고 지금 도전하라

함 호 진

- 부산 장안제일고등학교 졸업
- 연세대학교 상경대학 경영학과 졸업
-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3기생



I. 들어가기에 앞서

이른 아침 전화를 통해 대학동문이자 법학전문대학원 동기로부터 '검찰심화실무수습'을 다녀온 소감에 대해 글을 한번 써 보지 않겠냐는 권유를 받았습니다. 학교의 부회장으로서 늘 학생들을 위해 힘써 왔던 동기의 부탁이기도 했고, 특별히 어려움도 없을 거 같아 흔쾌히 권유에 응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글을 쓰려니 무슨말부터 시작해야할지, 내 글이 과연 독자들에게 제대로 전달은 될 수 있을지 등 무척이나 큰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렇지만 제 글이 검사에 관심을 가지고 향후 저처럼 검찰심화실무과정은 거쳐야 할 후배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부족하지만 몇 자 적어보자 합니다. 앞으로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검찰심화실무수습'을 다녀온 교육생의 입장에서 (1) 심화실무수습에 지원하게 된 동기, (2) 심화실무수습대상자로 선발되기까지의 과정, (3) 교육생으로서 실무수습과정에서 느꼈던 점, (4) 실무수습을 마치면서 아쉬웠던 점 등에

대해 솔직하게 써보고자 합니다. 따라서 글 중간 중간 저의 주관적 평가가 곳곳에 개입되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며 읽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미흡한 제 글이 검사를 꿈꾸고 '검찰심화실무수습과정'에 지원하려고 하는 많은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길 기대합니다.

II. 검찰심화실무수습에 지원하게 된 동기 및 선발과정

1. 지원동기

법학이라는 세상에 첫발을 디디면서, 법조인이 되기를 원하는 학생이라면 한번쯤은 누구나 검사를 꿈꾸어 봤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에게 있어서도 검사는 늘 동경에 대상이었습니다. 검사에 한발짝 다가가 보고자 자연스레 검찰실무1 수업을 들었고, 2012년 여름 방학동안 진행된 '검찰일반실무수습과정'의 커리큘럼 중 하나인 일선청 실무수습과정을 경험하면서 '정말 이 회사('검사님들께서는 검찰조직을 자주 우리회사 라고 말씀하셨습니다.)에서 저분들과 함께 일하고 싶다'는 욕심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시작도 하지 않고 포기하는 것보단 후회없이 도전만이라고 해 보고 싶은 마음에 심화실무수습에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저는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하기 전 약 6년정도 직장생활을 하였고 동기중 나이가 많은 편에 속하였으므로 나이로 인한 고민을 했었습니다.)

2. 선발과정

검찰심화실무수습의 경우는 일반실무수습과 달리 법학전문대학원별 배정인원이 명확히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일반실무수습의 경우에는 각 법학전문대학원별 입학정원 대비 20%를 선발합니다.) 따라서 법무부의 내부기준에는 있을 지 모르나 공개적인 발표는 하지 않습니다. 결국 정리하면 법무부의 선발기준에 따라 전국 법학전문대학원에 공통적인 기준을 적용하여 선발하되, 크게 2가지로 분류됩니다. 우선 각 법학전문대학원별로 학업성적만을 기준으로 일정 인원을 우선 선발하고 나머지 인원은 검찰실무1 성적이 우수한 학우들을 선발하게 됩니다. 학업 성적은 2학년 2학기 성적이 확정되기 전에 심화실무수습대상자선발 과정이 진행되는 바, 부득이 2학년 1학기의 성적까지만 포함됩니다. 또한 검찰실무1 성적만으로도 일정인원을 선발하는 바, 설사 본인의 학점이 좋지 않다 하더라도 검찰실

무1 성적이 우수하다면 충분히 본 과정에 선발될 수 있습니다.

Ⅲ. 검찰일반실무실습 실습과정

1. 법무연수원 교육

법무연수원 교육과정은 전 교육생을 대상으로 하는 집체교육, 문제해결형 기록 연습 및 실전기록 작성연습 각 2회, 심화실무성적에 반영되는 문제해결형 기록실무 평가 2회 및 객관식 평가 1회, 심화실무성적에 반영되는 주제토론과 영상녹화 실습 등 체험교육, 체육대회, 교육생 개별면담, 조별과제수행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교육생들은 여섯 개의 반으로 나뉘어 교육을 받고, 문제해결형 기록연습 및 기록실무 평가는 각 반별로 진행되고, 주제토론은 사전에 배정된 조별로 진행됩니다. 체육대회 등은 반별로 참가하고, 기타 기록에 대한 강평 등 전 교육생을 대상으로 하는 강의는 대강당에서 다함께 받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1) 등록 및 입교

‘검찰심화실무수습’ 대상자로 선발되게 되면 학교를 통해 법무연수원 입교시 유의사항 및 입교전에 작성하여 연수원에 제출해야할 서류들이 전달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서류는 자기소개서입니다. 작성양식은 정해져 있는 바, 그 서식에 따라 작성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때 작성하는 자기소개서는 향후 실무수습과정중 개별면담시 검사교수님께서 참고하시는 내용으로서 가능한 한 자세하면서도 솔직하게 작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본 과정은 일선청 수습이 진행되는 이들을 제외한 모든 일정이 법무연수원에서 진행됩니다. 제 경우는 입교 첫날 웬지 모르게 긴장이 되고 무척 떨렸던 기억이 납니다. 아마도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사람들과 만나 3주간 같이 생활해야 하는 점에 대한 기대와 본 과정의 중요성에 대한 부담감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교육생들의 이러한 마음을 이미 알고 계셨다는 듯이 법무연수원장님은 너무나 유쾌하시고 편안한 분위기에서 축사를 해 주셨습니다. 특히나 인상 깊었던 점은 법무연수원 합창단께서 직접 교육생들을 위해 훌륭한 공연을 해주셨던 것입니다.

입교식이 끝나면 본인이 배정된 반으로 돌아가 담당교수님과 같은 반 동기들간 에 인사를 나누고 간단하게 자기소개를 하는 시간이 진행되고, 오후에는 대외협력 단장님의 검찰업무 소개 및 담임교수님 중 한분께서 검사가 되기 위한 준비사항이라는 공통 주제로 전 교육생을 대상으로 한 교육이 진행되고 입교 첫 하루 일과가

마무리 됩니다.

(2) 특수범죄 수사사례 소개 등 집체 교육

본 과정은 전 교육생을 대상으로 하여 대강당에서 진행되었습니다. 법학전문대학원 수업과정에는 들을 수 없었던 해킹관련 범죄 및 금융증권범죄 수사사례를 접하면서 검사님들은 형사법 전문가를 넘어서 다른 분야에 대해서도 매우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특히 박승대 검사님께서 강의해 주신 증권관련 범죄는 너무나 흥미로워 강의 내내 재미있게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다만 조금 부담이 되었던 것은 이번 실무수습부터 평가 기준이 변경되어 전 교육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과정에 대한 학습의욕을 높이고자 추가된 평가로써 치르게 된 객관식 시험이었습니다. 물론 교육해 주시는 검사님들께서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는 꼼꼼히 깊어 주시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3) 체육대회

체육대회는 아마 대부분의 교육생들이 운동을 통해 서로를 알아 갈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3주간의 교육일정 동안 대부분의 일정은 각 반에서 진행되어 교육생 전원이 한자리에 모여 웃고 즐길 수 있는 시간은 흔치 않았습니 다. 특히 같은 반 동기생들이라 하더라도 서먹하고 어색한 분위기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운동을 통해 서로를 응원하고 격려해 주면서 동기들과 더욱 많은 교감을 나눌 수 있었고, 특히나 어렵기만 했던 담임 검사님도 운동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먼저 다가설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져 정말 뜻깊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4) 기록연습 및 강평

기록연습은 크게 문제해결형 기록연습 및 실전기록 작성연습 각 2회가 있습니다. 문제해결형 기록은 실제 사건을 총 여섯분의 지도교수님들께서 약간의 편집과 각색을 거쳐 출제하셨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내용은 실제 기록 내용과 동일합니다. 따라서 사실관계 자체가 매우 복잡하여 사실인정 및 법리 판단에 있어 무척이나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실전기록은 평소에 접할 수 있는 폭행 및 교통관련 범죄가 출제되어 크게 어려움을 느끼지는 못했습니다. 실전 평가가 아닌 연습이었지만 실전과 같이 3시간의 시간이 주어졌으며, 유의사항을 읽고 그에 따라 공소사실 및 불기소 사실, 주문, 그에 부합하는 내용 등을 작성하는 것이 주요 답안의 내용이었습니다. 특히 문제해결형 기록은 업무상횡령 및 업무상 배임과 같이

재산관련 범죄가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특히나 문제해결형 기록연습과정을 거치면서 상법의 중요성(ex.위탁자의 개념, 위탁매매의 개념 등)을 알 수 있었으며, 교과서를 보면서 쉽게 지나쳤던 횡령죄의 주체, 배임죄의 주체, 보호법익(ex.주식의 재물성 여부 등) 등의 개념에 대해서 좀 더 명확히 익히고 관련 판례를 숙지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 깨달을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습니다. 문제해결형 기록은 기록의 내용이 복잡하고 실제 평가점수에 반영되는 평가와도 관련성이 커 이에 대한 강령은 각 반별로 진행되었고, 실전기록은 작성은 각 반별로 진행되었으나, 강령은 전 교육생을 대상으로 대강당에서 진행되었습니다.

(5) 문제해결형 기록실무 평가 2회 및 객관식 평가 1회

객관식 평가 1회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 교육생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교육내용 중 강의를 진행하신 검사님들께서 중요하다고 언급해 주신 내용을 위주로 하여 문제 출제가 이뤄졌습니다. 따라서 교육과정 중에만 집중한다면 별도의 특별한 대비를 하지 않고도 큰 어려움 없이 시험을 치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해결형 기록실무 평가는 저에게는 무척 어렵게 느껴졌습니다. 그 동안 교과서를 통해 제가 학습한 내용들은 제시된 범죄가 성립하는지, 성립한다면 왜 성립하는지에 대한 결과적인 면이 중점을 이룬 것이었다면, 본 과정의 평가는 공소사실의 인정여부도 중요한 요소지만 그것과 관련된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분석해 내고 공소사실이 인정되거나 부인될 수 있는 각각의 사실을 정리해 내는 능력이 무엇보다 중요한 평가기준이 되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평가시간은 3시간 30분이 주어졌으나, 기록의 양이 워낙 많아 기록을 읽고 사실관계를 정리하는데만 해도 적게는 1시간 30분 많게는 2시간 가량 걸려던 거 같습니다. 향후 이러한 시험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평소 많은 실전 기록은 검토해 보고 공소사실과 관련된 사실은 메모하는 습관을 기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6) 주제토론 및 영상녹화 실습 등

주제토론, 영상녹화실습, 교도소방문은 이미 배정된 조에 편성되어 교차로 진행됩니다. 즉 총 3일에 걸쳐 위 세가지 교육과정이 진행되는데, 교육생 각자는 편성된 일정에 따라 참석하여 해당 교육을 소화하시면 됩니다.

주제토론은 사전에 배정된 조별로 진행됩니다. 12명이 한조가 되어 각 6명씩 찬반으로 나눠 토론이 진행되었습니다. 찬반을 나누는 기준은 공정을 기하기 위해 각자 제비뽑기를 통해 번호를 뽑게 되고 편의상 1번부터 6번까지, 7번부터 12번까지가 찬반조로 분류되었습니다. 다만 찬반조의 구분은 부득이 토론을 진행하시는 담당검사님께서 정해주시게 되고 이러한 절차가 끝나게 되면 곧 토론이 시작되

니다. 토론 주제는 토론이 시작됨과 동시에 배포되고 각자 자신이 배정된 찬반조에 입장에 따라 30분간 자신이 발표할 내용을 작성하게 됩니다(작성하는 용지는 토론 자리에서 배포됩니다). 이때 작성하는 내용은 각자 자신의 입장을 밝히는 기초발언의 주요내용이 되고 토론의 평가를 담당하시는 검사님 두분께서 관련 내용에 대해 질의하시는 데 있어 참고하시는 내용으로써 가능한 한 잘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주제토론은 심화실무성적의 평가요소에 해당되어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정해진 시간은 가능한 지키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제 경험상 자신의 의견과 반대되는 의견을 표명한 발표자의 발표내용은 최대한 귀 기울여 듣고 그에 대해 재반박을 하더라도 가능한 한 차분하고 정제된 표현으로 대응을 해야 한다는 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발표 중간에 재반박을 한다거나, 지나치게 단정적인 표현을 하는 것은 삼가야 할 행동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주제토론은 약 3시간 정도 진행되었고, 발표할 수 있는 기회는 참가인원에게 공평하게 부여됩니다. 찬반의 입장이 어느정도 정리가 된 후 토론 진행 검사님께서 마무리 발언을 하시면 약 20분간 채점하시는 검사님 두분께서 궁금하신 점에 대해 추가적인 질문을 하십니다. 이때 검사님께서 직접 지정을 하신 후 질문을 하는 경우도 있으시고 전원을 대상으로 하여 질문을 하고 원하는 교육생이 자발적으로 답변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과정이 끝나게 되면 주제토론은 마무리 됩니다.

영상녹화실습은 처음으로 경험하는 교육으로 무척 신기하고 재미있었습니다. 각 2명씩 총 4명이 한조가 되어 처음 2명이 검사 또는 수사관의 역할을 하고 나머지 2명은 피의자의 역할을 하여 피의자신문의 형태로 진행됩니다. 본 실습 전에 교육담당검사님께서 영상녹화실습시 유의사항을 사전에 안내해 주셔서 그에 따라 편하게 진행하시면 됩니다.

제가 방문한 교도소는 서울남부교도소였습니다. 교도소라고 하면 웬지 분위기도 어둡고 뭔가 딱 막힌 듯한 느낌을 받을 줄 알았지만 서울남부교도소는 너무나 깨끗하고 밝고 활기가 넘치는 곳이었습니다. 나중에 알게된 사실이지만 서울남부교도소는 수형자중에서도 모범수들만 올 수 있는 교도소로서 원하는 수형자 전원을 수용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수형자가 원한다면 독방을 쓸 수 있을 정도로 개인의 사생활과 편의가 제공되는 곳이었습니다. 수형자들은 본인이 원하는 작업장에서 직접 물건도 만들고, 여기서 만들어진 물건들은 전국 각 교도소로 납품도 된다는 사실은 교도소의 진정한 의미를 다시 새길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7) 조별과제 수행

조별과제수행은 각 반을 가,나 두 개조로 나눠 각 조별로 이뤄집니다. 조별과제 수행이라는 명칭이 다소 무겁게 느껴지지만 실질은 단체 장기자랑이라고 보시는 편이 더 이해가 빠를거 같습니다. 명시적으로 주제가 정해진 것은 아니고 각 조에서 하고 싶은 내용을 정해 준비하시면 됩니다. 저희 조는 교육중에 진행된 실제 사건을 재미있게 재구성하여 픽션을 가미한 역할극(연극과 콩트가 혼합된 극)을 발표하였습니다. 다른 조들은 합창을 하거나, 뮤지컬, 댄스 등 다양한 형태의 발표가 이뤄졌습니다. 비록 평가에 반영되는 것은 아니었지만 조원들 모두 밤을 새가며 준비하고 연습해 온 터라 긴장으로 인해 연습과 달리 실제 상황에서는 실수도 많이 했지만 그 자체도 너무 즐겁고 유쾌했으며 저에게 있어서는 정말 잊지 못할 추억이 되었습니다. 특히 어느 한조는 실제 사건을 뮤지컬화 하여 발표를 진행하였는데 실제 배우들이 하는 것처럼 완벽하게 극을 완성해 내는 것을 보고 여기오신 분들은 정말 기와 재치가 넘치시는 분들이라는 점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8) 개별면담

개별면담은 담임검사님께서 입교전에 제출한 자기소개서 등을 바탕으로 소속 교육생들과 약 10분에서 20분에 걸쳐 개별적인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개인신상에 대한 것부터 학업성적, 검사를 희망하는 이유 등에 대해 질문을 하시고 교육생들은 자신의 생각을 차분하게 말씀드리면 됩니다. 제 생각이긴 하지만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본인이 왜 검사가 되고 싶은 지, 얼마만큼 진정으로 검사가 되길 원하는 지에 대해 정확한 본인의 의지를 말씀드리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모인 교육생 대부분은 정말 검사가 되기를 원하지만 어느 조직이든 진심으로 그 조직에 최선을 다하고 충성할 수 있는 사람을 뽑고 싶은것이 당연한 일이라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2. 일선청 실무수습

일선청 실무수습은 거의 대부분 자신이 소속된 법학전문대학원 소재 지역에 있는 검찰청에서 진행됩니다.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은 청주에 소재하고 있는 바, 저는 청주지방검찰청에서 이를 동안 일선청실무수습을 받게 되었습니다. 각 검찰청의 사정이 달라 동일하다고는 볼 수 없지만 제가 청주지방검찰청의 경우에는 배정받은 다섯 명 전원은 각각 별도의 검사실에 배정해 주셨습니다. 각 검사실에는 검사님과 두분의 실무관님들이 근무를 하고 계셨습니다. 이미 일반실무수습

을 받으면서 한번 와 봤던 곳이었지만 실제 검사실에 배정되어 교육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니 설레기도 하면서 약간의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검사님과 더불어 실무관님은 바쁘신 와중에도 사건 기록 검토 및 작성에 많은 도움을 주셨으며, 실제 피의자신문이 계획되어 있는 사건 기록을 사전에 검토해 보게 해 주셔서 실질적인 피의자신문의 내용을 이해하고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다만 아쉬웠던 점은 이틀이라는 시간이 너무 짧아 실제 검사님들과 대화하고 교감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했던 점이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느낄 수 있었던 건 검사님들의 검사로서의 자부심의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업무에 임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IV. 검찰실무수습을 수료하면서 느낀 점

3주간의 시간은 정말 빠르게 지났습니다. 고된 기록평가시험을 보면서 다른 교육생들과 선의의 경쟁을 해야 할 때는 제 자신을 짓누르고 있는 중압감으로 빨리 이 시간이 흘러갔으면 하는 것이 바램이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실무수습일정이 끝나고 정들었던 같은 반 동기들과 헤어질 생각을 하니 서운하고 웬지 모를 찢힌 아쉬움을 느꼈습니다. 서로를 완전히 알아가기에는 짧은 시간이었을 수 있으나 힘들었던 시간과 즐거운 시간 모두를 같이 경험하고 공감했던 동기들이었기에 너무나 행복했던 시간들이었던 같습니다.

V. 마치면서

여러분은 한번쯤은 꿈꿔본 검사가 왜 되고 싶으신지에 대해서 진정으로 고민해 보신적이 있으신지요? 여러분들께 이런 질문을 드리고는 있는 제 스스로도 지금까지 깊은 고민을 해보진 못한거 같습니다. 하지만 이번 검찰심화실무수습은 제가 왜 검사가 되고 싶은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 꿈을 왜 꼭 이뤄야 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동기부여가 된 시간들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저와 같은 꿈을 꾸고 계시다면 꼭 한번쯤은 고민해 보시고 본 실무수습과정에 참여해 보실것을 권해드립니다.

이쯤에서 저의 검찰심화실무수습기를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제가 느낀점과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은 점을 가능한 자세하게 전달하려다 보니 생각보다 많은 지면을 차지하게 된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검찰심화실무수습을 지원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길 간절히 기대해 봅니다.

끝으로 저에게 검사를 향한 꿈을 꾸게 해 주시고 그 꿈을 향한 디딤돌을 마련해 주신 법무연수원 관계자님 외 지도검사님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